

美 國 - 보다 안전한 공동 무기개발사업 모색

美 국방부 관리들은 NATO와의 공동무기개발은 단기간의 생산만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쟁억제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에만 자금을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의 프란시스 세바스코 국제 개발 및 생산계획담당 부차관보는 <J.D.W>誌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보다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보다 많은 사업계획으로의 전환』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세바스코 차관보는 소위 「NATO-Nunn」 사업계획이라 일컫는 이 사업에서 미국측의 기금지원을 받는 여러가지 사업들은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전차의 검사시스템 보다는 전차포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집약적인 노력이 국방첨단연구사업국(DARPA)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미국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상원의 국방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샘-넌(Sam Nunn)의원의 후원하에 법률로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동군비계획사업에 5년전부터 공식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방예산이 계속 감축되는 시기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NATO 국가간의 중복된 비용투자를 회피할 수 있도록 공동출자를 하고, 사업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그 사업이 최초의 의도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내에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지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시기가 되면 미국은 그들 자체의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편협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본질적인 사실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군수산업 로비단체 소속의

미국 수출 및 안보지원 법률 분석가인 제임스 러셀(James Russell)은 말하고 있다.

넌 의원의 주도하에 1986 회계년도 이래 82개의 합작사업이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아왔다. 그 가운데 28개 사업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8개는 양해각서에 합의하였으며 21개 사업은 폐기되고 나머지 11개 이상이 NATO 국가들과 협상중에 있다.

최근에 이르러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는 NFR 90(향후 10년간에 걸친 구축함 대체사업) 계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선체의 전투체계 발전계획과 더불어 NATO국가의 대공전체계 개선 노력등 다국적 사업의 장래에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 참여로부터의 이탈은 그 이전에 미국과 영국이 대체 가능한 원거리 발사무기(Modular Stand Off Weapon) 개발사업시, 서독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가 자금의 지속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했던 것에 뒤따라 일어났다. 또한 영국은 자국이 주도하여 진행하던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개발사업에서 서독 대신 자금을 지원할 국가를 모색중이다.

세바스코는 합작사업에 대한 영국의 전반적인 의도를 염려하고 있다. 그는 최근의 이탈에 부가하여 영국이 기뢰 및 155mm 자동 정밀 유도포탄 개발계획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분명히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의 사업포기 추세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계속 영국과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美 국무부의 국방조달 담당관인 알랜 크라크(Alan Clark)는 영국이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정난과 위협의 변화에 따른 것

이지만, 영국은 무기개발에서 동맹국과 계속
협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능하다면 미국
은 세계의 어느 곳(국가)에서든지 공동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동안 모든 NATO 가맹국 정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미국의 자금을 배당받게 되는지
추시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FY 90 국방예산은
의회의 인준을 받았고,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몇가지 품목에 관한 NATO와의 공동연구개발
에 1억2천6백만불을 배당하였다. 이 결정이 내
러지기 전에 하원에서는 9천7백만불만을 승인
하였는데, 상원에서 2억불이 승인됨으로써 최
종적으로 1억2천6백만불로 조정되었다.

하원의 정부지출위원회에서는 155미리 자동
정밀 유도포탄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제안한바 있으며, 대공 무기체계와 수상함정용
어뢰방어체계도 같은 처지였다고 세바스코는
말했지만, 상원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예산이 승인된 것이다. 이와같이 공동개발사업
에 대한 예산삭감에 관한 논쟁이 일지 있었지만,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다국간의 노력은 필
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예산 배정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방
위산업체에서는 그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공식채널로부터의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겠다는 공약을 받으려고 한다. 맥도널 더글
라스(M.D) 미사일회사의 전략산업 기술발전
담당 부사장인 토마스 컬리간(Thomas Culligan)
은, 『우리는 확실한 정부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만을 원한다』고 밝혔다.

대서양 건너편의 유럽쪽에서는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급박한 무역장벽의 감소와 더불어
유럽 독자적인 조달정책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재래전용 무기소요의 감소가 합작사업
의 장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계속되겠지만 유럽시장에서의 외국의 역할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로비스트들은 샘-년 의
원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지닌 미결문제 가
운데 하나는 미국 국방기술과 자료를 외국회
사들에게 유출할때 적용할 정확한 규정이 부
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정지원과 정책
상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해도 유럽의 관측통
들은 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축되고 있다
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영국 BAe사의 로랜드 스미스(Roland Smith)
회장은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주변 동맹국과
의 보완적인 합병과 더불어, 가까운 장래에 그
규모가 경제성을 갖도록 압박을 받게될 것이
라고 말한바 있다. 예측컨데 별로 크지도 못한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는 합작개발사업이 계
속될 것 같다. 그러나 미국과 NATO가 직면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면 재정적 안정을 갖는 사
업의 계획화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다. *

〈J.D.W 1989. 11. 25〉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박가면서 해야지

도심 변호가에 큼직한 사무실을 얻어
개업한 풋내기 변호사가 개업한지 3개
월만에 처음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중년 남자를 발견했다.

『웁지, 애송이라고 알보이면 안되지』
라고 다짐하며, 재빨리 전화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뢰하신 사
건을 말할수 없게 됐습니다」

얼른 통화를 끝낸 풋내기 변호사는
거드름과 함께 회전의사를 돌리며 중년
의 남자에게 물었다.

『어떤 용건으로 오셨지요』

「예, 전화선을 연결하려고요」